# 이세상을 떠도는 유령들의 회개

## (막1:1-8)

1.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2.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3.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4.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5.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6.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 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7.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8.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이 세상을 떠도는 유령들의 회개>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구천을 떠도는 유령들이라는 말을 우리가 종종 듣게 됩니다.
이 '구천을 떠도는 유령이라는 말'을 조금 패러디해서 '세상을 떠도는 유령'이라는 말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세상을 떠도는 유령들의 회개를 세례요한이 촉구하는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었어요, 이 회개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준비인데, 그러니까 이 회개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이 회개가 제대로 되려면 내가 이 세상을 떠돌고 있는 유령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구천을 떠도는 유령이라는 말을 우리가 왜 하게 됩니까?

우리 민간신앙이나 불교에서 하는 말입니다.
구천을 떠도는 유령이라는 말은 근본적으로는 추측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죽음을 통과해서 다시 이 세상에 나타나신 죽음을 통과하신 분으로서 우리와 함께했던 사람이 역사상 없습니다.
그러므로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모든 언급이 다 추측일 뿐입니다.
오직 예수님 한분만이 죽음의 세계를 통과한 뒤에 우리들에게 나타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부활하신 그 상태, 그리고 그분의 부활하신 상태로 승천하신 그곳만이 진실 된 죽음 이후의 세계를 우리에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측일지라도 비유적으로 우리가 좀 써먹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구천을 떠도는 유령'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는가 하면, 몸이 죽고 나면 영혼이 몸으로부터 풀려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그건 맞는 말이지요, 지금 우리도 우리의 몸에 영혼이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제부터 추측이 이루어지는데, 이 영혼이 49일 안에 - 윤회의 세계가 여섯 가지 세계가 있는데 이것을 육도(六道)라고 합니다 - 이 몸을 빠져나온 영혼이 육도의 세계 중 어느 하나의 세계로 들어가서 윤회를 계속 하게 됩니다.
이 육도(六道)의 세계에는 삼악도(三惡道)와 삼선도(三善道)가 있는데, 삼악도는 지옥도, 아귀도, 축생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귀도라고 하면 사람의 몸을 입고 살다가 죄를 많이 져서 그 무거운 업보 때문에 죽은 다음에 아귀들이 사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지옥보다는 조금 낫지요.
그리고 그것보다 좀 덜 죄를 지었을 때 축생도, 짐승 벌레나 곤충 이런 것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불교의 윤회사상에 의하면.

이건 완전히 추측이지요.
누가 이렇게 해보기를 했습니까?
메뚜기로 태어나서 '내가 네 아빠다' 이렇게 누가 해본 적이 있어야 말이지요.
어쨌든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동안의 죄과에 따라서 이렇게 육도로 나뉘어져서 삼선도로 들어가든지 삼악도로 들어가든지 하는데, 이 세상에서 살면서 집착과 원망이 하도 커서 어느 다른 세계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 영혼들이 바로 구천, 즉 아홉 개의 하늘, 동서남북과 그 사이의 방위 그래서 여덟 개에다

가운데 하늘까지 해서 구천이라고 하는데, 그 구천을 떠도는 유령이 됩니다.
민간신앙에서는 저승세계에 안착하지 못할 만큼 이 세상에 대해 억울함과 원망과 한이 클 경우에 바로 구천을 떠도는 유령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건 다 추측이고, 유령이 있느냐 없느냐?
있습니다,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유령이 있습니다.
구천이라는 것도 추측입니다, 또 저승에 안착하지 못한 영혼이 유령이 된다는 이 민간신앙도 거짓이고 추측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구천을 떠도는 유령은 없지만, 우리가 보고 듣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이 세상, 이 대한민국, 이 사회 안에 떠돌고 있는 유령은 있습니다.
이 세상을 떠도는 유령이 있다는 거예요.
구천을 떠도는 유령, 저승에 안착하지 못해서 허공을 떠돌아다니는 귀신이나 혼령은 몰라도 이 세상을 떠도는 유령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몸이 살아있을 때 이미 유령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 유령들을 향하여 세례요한이 '너희가 복음을 받아들이려면 회개를 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상황이 회개라는 것이에요.
회개의 마음상태가 되어야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개를 외치는 세례요한이 바로 광야에서 외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자, 왜 이게 필요할까요?
광야에서 회개를 촉구하는 외침의 설교가 나온 것이 우연일까요?
우연히 광야가 좋아서 세례요한이 거기서 그냥 외친 걸까요?
아니에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떠도는 유령들을 회개시켜야 되기 때문에 광야에 나갈 수밖에 없었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 유령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려고.

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도는 유령들일까요?
유령의 유(幽)자가 아득할 유자입니다, 아득하다, 멀다, 어둡다는 뜻도 있고 또 가둔다 갇힌다

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득하게 멀고 어두운 곳에 갇혀있는 것'이 유령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유령이라는 겁니다, 왜 유령일까요?
우리는 이 세상을 이승이라고 하고 죽은 다음의 세상을 저승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기준을 좀 바꿔봅니다.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경험한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그 빛의 세계를 맛볼 때, 베드로가 이 세상에서 가졌던 핑크빛 꿈과 비전을 다 잊어버립니다.
이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것을 까마득하게 상실하고 망각해버릴 정도로 주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계시는 그 하늘나라가 아름답고 좋은 빛의 나라입니다.
그것이 우리 아버지의 집입니다, 아버지의 집이고 내 집이에요.
그게 내 집일 경우에 이곳이 바로 저승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몸을 입고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둠의 나라이고, 아버지의 나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유령의 유(幽)자가 아득하게 멀리 어두운 곳에 갇혀 있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세상이 저승입니다.
이게 바로 저승이고, 오히려 아버지의 집, 빛의 나라가 이승이에요, 그게 바로 내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저승에 와가지고 구천을 떠도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떠돌고 있다는 겁니다.

변화산에서 경험한 그 나라를 기준으로 볼 때 바로 이 세상이 저승이고, 아무리 좋은 꼴을 이 세상에서 본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두움의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저승의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라는 얘깁니다.
내 아버지의 나라와 내 아버지의 집, 내가 가야 될 그 집, 내가 있어야 될 그 집을 기준으로 볼 때 이 세상이 어두운 저승입니다.
어두운 곳을 떠도는 유령이라는 얘기에요.

자, 그러면 그 유령들에게 세례요한이 왜 광야에서 외치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유령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어두움의 세상으로 오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 이루어진 십자가복음사건을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광야라는 것이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적용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정을 꾸리고, 사회를 꾸리고, 나라를 만들어 살고 있는 삶이 죽은 곳입니다.
먹기 위해, 입기 위해, 출세하기 위해, 승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성실하게 책임지고 살아가는 모든 삶이 죽은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그 광야에서 회개를 외칩니까?

회개는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을 내 것으로 수용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단순히 내가 도둑질 한 것, 십계명을 어긴 것을 낱낱이 그 행위를 돌이키며 잘못했다고 비는 것만이 회개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근본적으로 광야에 나가는 것이 회개의 의미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삶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내 몸으로 이루어진 이 세상의 삶을 책임지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 자체가 죄라는 겁니다.
즉, 세상을 떠도는 유령이라는 거예요.
내가 좋은 차를 한 대 사고 싶습니다, 차라는 것에 마음이 붙었고 마음이 차에 묻혀버립니다.
마음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만 드려져야 하는 거라고 분명히 못 박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므로 이 마음이 내 자식에게 붙어있으면 자식으로부터 더러움이 묻습니다, 본디 자식도 더러운 게 아니고 내 마음도 더러운 것이 아닌데 마음이 자식에게 붙으면 더러워집니다.
그 말씀은 분명히 드렸습니다.
새하얀 실크 원피스를 입고 그 스커트 폭에 김치를 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김치도 입에 넣는 깨끗한 것이고 하얀 실크 원피스도 좋은 것이로되, 그 원피스에 김치를 담고 고추장을 담으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자식도 좋고 내 마음도 좋은 것인데, 마음이 자식을 붙잡으면 거기서 더러움이 묻어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떠돈다는 것은 마음이 갖고 싶어 한 것, 마음이 사랑한 것, 마음이 좋아하는 것이 이 세상 경계 안에 있는 한 이 세상을 떠돌고 있는 귀신이요 유령이라는 거예요.

귀신과 마귀에게 빙의되어 이 세상 것을 좋아하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성실한 부모로서의 마땅한 마음가짐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세상이 저승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저승 속에서 내 자식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마음이 더럽혀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 마음이 애인을 사랑한다, 더럽혀지는 것이고, 마음이 사업을 사랑한다, 더럽혀지는 겁니다.
사업을 성실하고 근면하게 열심히 한다, 훌륭한 아빠다? 아니요, 더러운 아빠입니다.
내 아이들을 열심히 마음을 다하여 키운다, 훌륭한 엄마다? 아니요, 더러운 엄마입니다.
내 마음이 이 세상의 경계 안에 있는 누구든, 무엇이든, 어떤 사건이든지 간에 마음에 담고 있으면 마음은 더러워지게 돼있고 그 마음은 귀신에게 빙의된 유령입니다.

이 세상은 이 몸이 살아있는 동안에 몸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면서 삶이 진행되어야 되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나타난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세상의 경계 안에서 내 마음이 갖고 싶고 이루고 싶은 것들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하나님이 스스로 이루어나가시면 됩니다, 내 몸을 통해서.
그런데 내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서 내 스스로 하나님만 채워지면 될 내 마음 안에, 세상의 경계 안에서 내가 따로 먹고 싶어 하고 갖고 싶어 하고 이루고 싶어 하는 것들을 따로 챙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더러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행위로 지은 죄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내 자식을 무척 좋아한 것까지, 회개하세요, 마음이 더러워진 거예요.
어떤 차를 사고 싶었다, 회개하세요, 더러워진 겁니다.
그 차가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사게 해주실 겁니다, 자식에게 필요한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실 겁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회개를 외치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광야 얘기가 나옵니다, 광야 40년 뒤에 복지로 들어갑니다.
자,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이 이루어졌어요, 애굽의 생활은 노예생활이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돈이 좋다, 명예가 좋다, 결혼이 좋다, 출세가 좋다 하면서 좋다고 하는

것들을 세상에서 배운 대로 마음에 간직한 채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더럽고 더러운 생애가 바로 노예생활입니다.

귀신이 빙의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귀신들려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건전한 게 아니고 근면한 게 아니고, 책임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귀신들려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 우리 마음은 빛의 나라, 내 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저승 속에서 헤매지 말고.
그래서 아버지하나님과 성령님과 아들하나님으로 성령의 교통을 통해 마음이 가득 채워진 상태로 있는 동안에 거기서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는 동안에 내 몸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바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삭을 잘 키우는 게 과제가 아니라 바치는 게 과제예요, 그 과제를 잘하고 내 마음은 이삭으로 채우지 않고 하나님으로 채우면 이삭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얘기였지요.

그러므로 광야에서 회개를 외치라는 것은 삶에 대해 죽으라는 얘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을 삶에 써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삶에 대해서 죽는 것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본자세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줍니다, 왜 그렇지요?
우리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에서 반복해서 함께 확인한 게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 가려면 마리아 코스워크를 지나야 됩니다, 죽음의 강을 지나야 됩니다.
왜 요단강에서 세례를 줍니까?
세상에 대해서 죽으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그 소리를 듣고 광야로 나간 사람들, 이제 이 세상에 대해서  세상을 떠나온 사람들, 마음으로도 이 세상에 대해 죽으라는 얘깁니다.
마음으로도 이 세상에 대해 죽을 각오가 돼있지 않으면 예수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서의 삶을 위하여 써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삶이 죽어야, 세상을 떠도는 유령의 신분이 죽어야 복음이신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사건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그 십자가복음의 사건으로 내가 죄 사함 받았다고 해서 마음 놓고 세상으로 다시 깊이깊이 들어가서 죽음의 강가에서 떠나 내륙지방으로 깊이깊이 들어가서 세상을 떠도는 유령의 시절을 다시 재현하여 살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아침에 일어나 자식을 보고 좋아하고, 아내와 남편을 보고 좋아하고, 부모님을 보고 든든해하고, 이 모든 것이 다 마음이 더러워지고 또 더러워지고 또 더러운 물이 들어, 마치 고등어조림에 양념이 무에 배어들어간 것처럼 그렇게 철저하게 죄의 조림이 된 상태로 되고 있는데, 이걸 돌이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삶을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부활한 예수님 의심한다고 그랬잖아요? 무얼 의심하는 거예요?
내가 삶을 떠났을 때, 내 몸으로 이루어진 이 세상의 삶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어갈 때 그걸 하나님 뜻에 맡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 맡겨서 3년을 따라가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내 꿈이 완전 깨져버렸어요, 그러니 어떻게 그 예수님께 맡깁니까?
예수님께 내 몸으로 이루어진 이 세상의 삶을 맡겨드린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이 경악할 정도로 멋지고 굉장한 삶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너무 평범한 일상이 죽을 때까지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삶 속에서도 죽을 때까지 돈 없이 쩔쩔매며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못 맡기는 거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세상에 대한 집착과 원망과 억울함이 하도 커서 윤회의 육도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처럼, 비유적으로 말해서 이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게 하도 많아서 삶을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삶을 떠날 각오가 돼야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그래야 삶을 떠날 각오로 복음을 받아들인 자의 마음들을 성령께서 하늘나라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아버지를 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맞이하게 하고, 만나게 하고, 하나님으로 배부르게 해주는 이 역사를 저버리고, 이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것들이 많아서 아직도 세상에 대해 죽지 못하고, 광야로 나가지 못하고, 요단강에서 빠져죽지 못하고, 세상의 경계 안에서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하면서 세상을 떠도

는 유령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유령들이 '주여, 주여!'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유령의 주님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을 떠도는 유령들의 주님이 될 수 없는 분이시고, 오직 세상을 떠도는 유령의 신분이 온전히 광야로, 삶이 없는 곳으로 나가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각오를 세례요한이 준비시키는 겁니다.
'이제 주님이 오시면 내가 세상의 삶을 멋지게 살아봐야지, 내가 계획하고 있는 꿈을 이루어 봐야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삶에 써먹으려 하지 말고 복음을 받아들이려면 광야로 나가서 삶이 없는 곳으로 나가 삶이 죽을 각오를 하고, 요단강에서 삶에 대해 죽는 자가 된 뒤에야 주님의 복음을, 복음 되신 주님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될 것이고, 그러면 요단강 이편에 남아있는 내 몸의 삶은 하나님의 활동장소가 될 것이고, 내 마음은 하늘나라로 가서 그 아버지에게서 성취를 느끼고 아버지에게서 보람을 느끼고 아버지에게서 만족을 느끼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세례요한은 광야로 나가서 외치면서, 자기에게 찾아온 자들에게 요단강에서 물에 침수를 시켜버리는 세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아직도 주님의 복음을 삶에 써먹으려고 하고 있는 세상을 떠도는 유령으로 살고 있습니까?
이제 이 유령됨을 중단하게 하시고 광야로 나가는 마음을 확보하게 하시며 기꺼이 요단강에서 이 세상에 대해 죽는 자들로 각오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권면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